

20대 연령층의 이성교제 여부에 따른 구강위생상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경희 · 권현정 · 윤혜정¹

신흥대학 치위생과, ¹초당대학교 치위생과

색인: 이성교제, 구강위생, 애정유형

1. 서 론

흔히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등¹⁾은 사랑을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갈등도 없는 관계라고 하였고, 윤²⁾은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절도 있는 관여라고 하였으며, 박³⁾은 자신과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의지적인 실천적 행위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처럼 사랑과 연관된 이성교제는 대학생들에게 발달 과업적인 측면, 인간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고민과 주요 갈등의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⁴⁾.

'이성교제'란 여러 명의 이성친구와 사귀으로써 동성이 갖고 있지 않은 그들의 사고, 관심 등을 이해하고 공유하여 자신의 인격과 지적, 정서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고 형태를 말한

다⁵⁻⁷⁾. 흔히 취미나 특기, 종교가 같은 이들끼리의 모임에서, 또는 미팅이나 소개팅으로 이성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성교제를 통하여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이성과 좋은 관계를 만들며, 이성교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과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성교제는 이성을 존중할 줄 아는 자질을 키우고, 상대 성(性)의 역할을 이해하며, 사랑의 본질과 기쁨을 알게 됨으로써 이성에 대한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덜어주고, 남녀가 서로 어울려 지내는 예절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또한 장래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생활에 대한 유익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8,9)}. 더불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정¹⁰⁾은 이성의 선택조건 중, 우선순위에 있어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성교제를 통하여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찌

면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외모’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의미한다. 외모에 관심을 갖게 되면 본인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모에는 치아를 비롯한 구강위생이 반드시 포함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얼굴은 다른 신체부위보다 타인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고, 예로부터 치아가 잘 생긴 사람을 백옥같은 치아를 가진 미인이라고 일컬으며 치아가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해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이며, 이성에게 많은 호감을 줄 수 있는 활짝 웃는 미소와 채취는 무엇보다도 구강위생과 관련이 높기 때문이다. 그 예로 최근 생활 수준의 향상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치료뿐만이 아닌 좀더 높은 질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치열을 교정하는 사람과 구취치료 및 치아미백치료 등 심미적인 치료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11,12)}.

이에 본 연구는 2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성교제 여부가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구강위생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가까운 미래에 사회 구성원으로써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대학생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적절한 구강보건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6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 대한 설명 후, 설문작성 및 구강검진을 수락한 사람에 한

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설문을 작성하도록 한 후, 훈련된 조사자 2인이 조사대상자의 간이구강환경지수를 검사하여 실시하였다.

2.2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성교제 현황 및 유형, 이성교제에 따른 구강진료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및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구강진료경험 및 구강위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Chi-square)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 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연령은 20대 초반이 7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중반이 20.8%를 차지하였으며, 성별은 남성이 55.7%이었고, 여성이 44.3%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은 대학생이 91.7%를 차지하였고, 직장인 8.3%를 차지하였으며, 주거지역은 서울 거주자가 58.9%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거주자는 41.1%로 나타났다.

3.2 이성교제 유무

조사대상자의 이성교제 유무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현재 교제 중인 자는 37.5%로 나타났으며, 비교제자는 62.5%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연령	20대 초반(20~23)	149	77.6
	20대 중반(24~26)	40	20.8
	20대 후반(27~29)	3	1.6
성별	남	107	55.7
	여	85	44.3
직업	대학생	176	91.7
	직장인	16	8.3
주거지역	서울	113	58.9
	경기도	79	41.1
합 계		192	100.0

표 2. 교제유무

(단위 :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유	72	37.5
무	120	62.5
합계	192	100.0

3.3 이성교제 현황

교제 중인 자를 대상으로 교제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현 이성과의 교제기간을 살펴본 결과, 1년 미만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3년이 22.2%, 100일 이내 13.9%, 30일 이내 12.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교제인원을 살펴본 결과, 1명이 2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명이 19.4%, 2명이 18.1%, 5명이 15.3% 순으로 나타났다.

현 교제이성과의 결혼 염두 여부를 살펴본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40.3%였고, 그렇지 않다는 59.7%로 나타났다.

현 교제이성과의 사랑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에로스(낭만적, 열정적 사랑)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트로게(우애적 사랑)가 33.3%, 아가페(이타적, 헌신적 사랑) 12.5%, 매니아(소유적 사랑) 6.9% 순으로 나타났다.

3.4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구강위생상태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구강위생상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잇솔질 횟수는 교제 중인 경우, 36.1%가 3회 이상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제자는 34.2%가 3회 이상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잇솔질 시간은 교제 중인 경우, 45.9%가 3분 이상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제자는 45.0%가 3분 이상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이구강환경지수는 교제 중인 경우, 45.8%가 양호(0-1.2)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제자는 50.0%가 양호(0-1.2)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교제현황

(단위 :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현 이성과의 교제기간	30일 이내	9	12.5
	100일 이내	10	13.9
	1년 미만	29	40.3
	1~3년	16	22.2
	3년 이상	8	11.1
현재까지의 교제인원	1명	17	23.6
	2명	13	18.1
	3명	14	19.4
	4명	9	12.5
	5명	11	15.3
	6명 이상	8	11.1
결혼 염두	그렇다	29	40.3
	그렇지 않다	43	59.7
사랑유형	에로스(낭만적, 열정적 사랑)	30	41.7
	루두스(유희적 사랑)	3	4.2
	스트로게(우애적 사랑)	24	33.3
	매니아(소유적 사랑)	5	6.9
	프래그마(실용적 사랑, 논리적 사랑)	1	1.4
	아가페(이타적, 헌신적 사랑)	9	12.5
합 계		72	100.0

표 4. 교제유무에 따른 구강위생상태

(단위 : 명, %)

구분		유	무	전체	p
잇솔질 횟수	1회	1 (1.4)	1 (0.8)	2 (1.0)	0.959
	2회	45 (62.5)	78 (65.0)	123 (64.1)	
	3회	18 (25.0)	28 (23.3)	46 (24.0)	
	4회	2 (2.8)	5 (4.2)	7 (3.6)	
	5회 이상	6 (8.3)	8 (6.7)	14 (7.3)	
잇솔질 시간	1분	7 (9.7)	11 (9.2)	18 (9.4)	0.850
	2분	32 (44.4)	55 (45.8)	87 (45.3)	
	3분	28 (38.9)	41 (34.2)	69 (35.9)	
	4분	3 (4.2)	9 (7.5)	12 (6.3)	
	5분 이상	2 (2.8)	4 (3.3)	6 (3.1)	
간이구강환경지수	양호(0-1.2)	33 (45.8)	60 (50.0)	93 (48.4)	0.885
	불량(1.3-3.0)	36 (50.0)	55 (45.8)	91 (47.4)	
	매우 불량(3.1-6.0)	3 (4.2)	5 (4.2)	8 (4.2)	
합계		72 (100.0)	120 (100.0)	192 (100.0)	

3.5 교제유무에 따른 구강진료경험

교제유무에 따른 구강진료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스켈링 치료 경험을 살펴본 결과 교제 중인 자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19.4%로 나타났고, 비교제자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9.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E0.05$).

충치치료 경험을 살펴본 결과 교제 중인 자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19.4%로 나타났고, 비교제자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11.7%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취치료 경험을 살펴본 결과 교제 중인 자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28%로 나타났고, 비교제자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25%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백치료 경험을 살펴본 결과 교제 중인 자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28%로 나타났고, 비교제자는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6 이성교제 유무가 구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이성교제 유무가 구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교제 중인 자는 59.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비교제자는 38.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E0.01$).

3.7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환경지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환경지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7).

연령별로는 20대 중반이 55.0%로 양호(0-1.2)

표 5. 교제유무에 따른 구강진료경험

(단위 : 명, %)

구분		현재 교제상태			p
		유	무	전체	
스켈링 경험	유	14 (19.4)	11 (9.2)	25 (13.0)	0.040*
	무	58 (80.6)	109 (90.8)	167 (87.0)	
충치치료 경험	유	14 (19.4)	14 (11.7)	28 (14.6)	0.139
	무	58 (80.6)	106 (88.3)	164 (85.4)	
구취치료 경험	유	2 (2.8)	3 (2.5)	5 (2.6)	0.907
	무	70 (97.2)	117 (97.5)	187 (97.4)	
미백치료 경험	유	2 (2.8)	0 (0.0)	2 (1.0)	0.066
	무	70 (97.2)	120 (100.0)	190 (99.0)	
전체		72 (100.0)	120 (100.0)	192 (100.0)	

* $pE0.05$

표 6. 이성교제 유무가 구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분		현재 교제상태			p
		유	무	전체	
구강관리에 미치는 영향	유	43 (59.7)	46 (38.3)	89 (46.4)	0.004**
	무	29 (40.3)	74 (61.7)	103 (53.6)	
전체		72 (100.0)	120 (100.0)	192 (100.0)	

** $pE0.01$

상태가 가장 많았으며, 20대 후반이 33.3%로 매우불량(3.1-6.0) 상태가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55.3%로 양호(0-1.2) 상태가 남성의 43.0%보다 많았고, 남성이 6.5%로 매우불량(3.1-6.0) 상태가 여성의 1.2%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50.0%로 대학생의 48.3% 보다 양호(0-1.2) 상태가 많았으나 매우불량(3.1-6.0) 상태도 직장인이 18.8%로 대학생의 2.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E0.01$).

4. 중괄 및 고안

이성관계는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인격형성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며, 애정의 본질과 애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한다. 또한 영육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이성관계에 있어서의 애정상태는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정상태가 구강위생 상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좀더 나은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관리 방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성교제 유무는 현재 교제 중인 자가 37.5%로 비교제 중인 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의 이성교제 유무를 묻는 문항으로 기존의 교제경험은 여기에 속하지 않으므로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이성교제 기간에 대한 결과를 보면 1년 미만이 가장 많았는데, 이 결과는 이 등¹³⁾의 3개월~1년 사이와 이¹⁴⁾의 6개월 이하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으며, 이성교제 기간에 조사지역이나 남녀 비율, 교제 경험도와 같은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교제인원은 1명 23.6%, 3명 19.4%, 2명 18.1% 등 1~6명 이상까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고, 현 교제 이성과의 결혼 염두에 대한 결과에서는 '그렇다'가 40.3%로 절반에

표 7.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환경지수

(단위 : 명, %)

구 분		구강환경지수(0-6.0)			전체	p
		양호(0-1.2)	불량(1.3-3.0)	매우불량(3.1-6.0)		
연령	20대 초반 (20~23세)	71 (47.7)	73 (49.0)	5 (3.4)	149 (100.0)	0.060
	20대 중반 (24~26세)	22 (55.0)	16 (40.0)	2 (5.0)	40 (100.0)	
	20대 후반 (27~29세)	0 (0.0)	2 (66.7)	1 (33.3)	3 (100.0)	
	전체	93 (48.4)	91 (47.4)	8 (4.2)	192 (100.0)	
성별	남	46 (43.0)	54 (50.5)	7 (6.5)	107 (100.0)	0.073
	여	47 (55.3)	37 (43.5)	1 (1.2)	85 (100.0)	
	전체	93 (48.4)	91 (47.4)	8 (4.2)	192 (100.0)	
현재지위	대학생	85 (48.3)	86 (48.9)	5 (2.8)	176 (100.0)	0.007**
	직장인	8 (50.0)	5 (31.3)	3 (18.8)	16 (100.0)	
	전체	93 (48.4)	91 (47.4)	8 (4.2)	192 (100.0)	

** $pE0.01$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으나, 이 등¹³⁾에서의 결혼 고려여부에 대한 결과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을 보여 조사대상의 91.7%가 학생이고, 20대 초반이 7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좀더 깊은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

교제 이성과의 사랑의 유형에 대한 결과를 보면 에로스(낭만적, 열정적 사랑)가 4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스트로게(우애적 사랑)가 33.3%를 차지하였다. 사랑의 유형 중 에로스는 사랑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며,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강렬하고 그런 감정이 자신의 전체 생활을 지배하는 사랑을 말하며, 따라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만남임을 굳게 믿는 경향이 있다. 또한 스트로게는 단기간의 흥분보다는 장기간의 우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육체적 매력이나 성적 만족보다는 두 사람이 얼마나 동질적인 가치를 공유하는가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Amelang 등¹⁵⁾에 의하면 사랑의 유형 중 에로스와 스트로게는 상대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는 이들 유형이 75.0%를 차지하여 이 시기의 이성교제는 상대방에 의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구강위생상태를 살펴본 결과, 잇솔질 횟수는 3회 이상이 각각 36.1%, 34.2%로 나타나 교제 중인 자와 비교제자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윤¹⁶⁾의 27.6%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으며,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배¹⁷⁾의 50.6%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잇솔질 시간도 3분 이상이 각각 45.9%, 45.0%로 나타나 교제 중인 자와 비교제자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배¹⁷⁾의 46.7%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간이구강환경지수도 양호(0-1.2) 상태가 각

각 45.8%, 50.0%로 나타나 교제 중인 자와 비교제자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양호(0-1.2) 상태가 34.7%로 조사된 윤¹⁶⁾의 결과에 비해서는 높은 구강위생상태를 나타내었다.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구강진료경험을 살펴본 결과 충치치료, 구취치료, 미백치료 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스켈링 치료 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이 결과는 조사대상의 91.7%가 학생인 점을 감안할 때, 치료비용의 마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구취나 미백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비해 아직까지 실질적인 치료경험은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강질환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효과적인 스켈링에 대한 경험은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구강위생 상태의 개선 방법으로 스켈링이 실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교제 중인 자의 스켈링 경험이 19.4%로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윤¹⁶⁾의 21.1%보다는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유무가 구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교제 중인 자가 59.7%로 비교제자의 38.3%에 비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이 결과는 교제 중인 자와 비교제자 간에 구강위생상태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성교제 시 구강위생 상태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더라도 인식에는 변화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환경지수를 살펴본 결과, 연령별로는 20대 중반이 양호(0-1.2) 상태가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이 매우 불량(3.1-6.0) 상태가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양

호(0-1.2) 상태가 남성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대학생보다 양호(0-1.2) 상태가 많았으나 매우 불량(3.1-6.0) 상태도 직장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p < 0.01$), 직장인의 구강위생상태는 개인차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이성교제 중인 사람이 구강위생상태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로 구강 내 상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들에게 구강위생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구강위생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구강위생상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향, 즉 관리행태, 습관, 음식섭취 등과 관련된 다각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이성교제가 구강위생상태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상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조사대상 중 직장인이 83%에 불과하여 20대 연령층의 구강위생상태와 인식을 대표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 좀더 다양한 연구도구의 개발을 통해 연구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역을 확대하여 추가검증을 실시하고, 조사대상의 편중을 줄여 연구의 일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 론

이성교제 여부가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구강위생상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에 사회구성원으로써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학생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적절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2006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구강위생상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이성교제 유무를 살펴본 결과, 현재 교제 중인 자는 37.5%로 나타났으며, 비교제자는 62.5%로 나타났다.
- 2) 이성교제 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제 기간은 1년 미만이 40.3%로 가장 많았고, 현재까지의 교제인원은 1명이 23.6%로 가장 많았다. 교제이성과의 결혼 염두 여부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0.3%로 나타났고, 사랑의 유형은 에로스(낭만적, 열정적 사랑)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토르게(우애적 사랑) 33.3%, 아가페(이타적, 헌신적 사랑) 12.5% 순으로 나타났다.
- 3)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구강위생상태를 살펴본 결과, 잇솔질 횟수, 잇솔질 시간, 간이 구강환경지수 모두에서 교제 중인 자와 비교제자 간에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4)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구강진료경험을 살펴본 결과, 충치치료, 구취치료, 미백치료 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스케일링 치료 경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 5) 이성교제 유무가 구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교제 중인 자는 59.7%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비교제자는 38.3%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 6)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환경지수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성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업별로는 직장인에서 양호한 상태나 불량한 상태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참고문헌

- 이형득 외 공역. 부모교육. 서울. 형설출판사;1987.
- 윤호균.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성론. 연세대학교 출판사;1982.
- 박영태. "사랑을 통한 학습지도모형", 학생생활연구,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4;22:173-201
- 김경순. 교제 중인 대학생을 위한 사랑학습 프로그램 개발. 제주대학교 學生生活研究 2001.
- 정민아. 청소년기의 이성간 사랑유형 분석—Stenberg의 사랑의 삼각이론을 중심으로. 한 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조은혜. 성격과 사랑유형간의 관계-사랑유형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은영. 사랑요인의 확인과 사랑척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정민. 이성교제 시 낙관성과 자기효능감이 갈등대처방식과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유봉현. 아동기의 이상구강 형태가 청년기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정미경.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에 관한 연구. 삼척대학교 學生生活研究 2004.
- 김혜경.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련된 요인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차문호 외. 소아교정학. 서울. 이우문화사;1987:7-8
- 이재창, 이운조. 성인애착과 사랑유형 및 관계만족의 관계. 홍익대학교 教育研究論叢 2005.
- 이민재. 성인전기의 사랑유형과 자아 존중감, 신뢰감 및 관계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Amelang et al., Attraktion und Liebe : Formen und Grundlagen partnerschaftlicher Beziehungen. Göttingen: Verl. für Psychologie, Hogrefe 1991.
- 윤희숙. 대학신입생들의 구강보건 인식도와 구강위생상태와의 관련성.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배지영. 전문대학생들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dating to oral health state among people in their 20s

Kyung-Hee Lee, Hyun-Jung Gwon and Hye-Jeong Youn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heung college, Uijeongbu-City, 480-701, Korea

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o-dang university, Muan-Gun, Jeollanam-do, 534-701, Korea*

key word : Intersexual friends, Oral hygiene, A type of lo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dating affected young people's concern for their looks and their oral health state, and to motivate students to promote their oral health, as national oral health depended on students who would grow into eligible members of society in the near future. Relevant literature and data were review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residents in and around Seoul, who were in their 20s, for approximately three months from June through August 2006 to find out about their oral health statu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Whether they were seeing someone or not was investigated, and it's found that 37.5 percent had a girl friend or boy friend, and that 6.7 percent hadn't.
2. Concerning the state of dating, 40.3 percent, the largest percentage, had been dating for less than a year, and the largest number of them that accounted for 23.6 percent had been dating one person till then. 4.0 percent were considering getting married with those whom they were seeing. The most dominant type of love was eros(romantic or ardent love: 41.7%), followed by storge(friendly love: 33.3%), and agape (altruistic, devoted love: 12.5%).
3. As for the impact of dating on oral health status, those who were seeing someone were similar to those who weren't in toothbrushing frequency, toothbrushing time and simplified oral hygiene index. There was no significant gap between the two.
4. Concerning the influence of dating on dental-treatment experienc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group differences were found in experiences of taking dental-carries treatment, bad-breath treatment and teeth-whitening treatmen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tergroup gap

only in scaling experience($p \leq 0.05$).

5. Regarding the impact of dating on oral health care, 59.7 percent of those who were dating thought that it affected oral health care, and the same rate of the others who weren't stood at 38.3 percen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gap between the two($p \leq 0.01$).
6. As to the influence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oral hygiene index, their age and gender mad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o that. By occupation, however, many of the company employees were in good oral health, and many of them were in bad oral health, too. The office worke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thers in that regard($p \leq 0.01$).